

5년간 230억원 투입 남원관광지 확 바꾼다

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옛 비사벌콘도에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조성 남원 랜드마크 '사랑의 중' 설치...마당극 '달빛전설' 상설 공연 추진

남원 컨설팅리조트 옆 옛 비사벌콘도 지하공간과 유휴부지가 관광자원으로 재개발된다. 또 사랑의 중-경관조형 설치 등 남원관광단지 리모델링한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결과, '남원관광지 리플러스(RE-PLUS)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13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기에 시비 100억원을 더해 총 230억원을 남원관광개발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대표적 핵심인프라 사업으로 남원 컨설팅리조트 옆 옛 비사벌콘도 유휴부지 지하공간을 재생해 남원의 스토리를 IT와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시설을 설치한다. 이 곳 지상 1층에는 시민쉼터와 편의공간, 옥상 꽃빛정원을 조성한다.

사랑의 광장에는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사랑의 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주변에는 테마별, 이벤트성 랜드마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의 대표 마당극으로 '달빛전설'이라는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남원관광지 연계 코스 개발,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전차 운영, 관광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등도 추진한다.

남원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을 통해 연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24년까지 핵심 및 인프라사업을 마무리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16개 지자체 중 남원시를 포함한 8곳이 최종 선정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시설의 노후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공간을 재창조해 남원관광의 매력을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남원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계획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일대에서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청년영농실습농장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순창군 제공>

'청년실습농장' 8월 오픈 순창군, 청년인구 늘리기 앞장

순창군이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영농실습농장을 조성하는 등 청년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귀농인들의 연령층이 점차 젊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예비 청년귀농인들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영농 경력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1만6000㎡ 규모의 영농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일대에 관리사와 창고 등 시설물 2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

청년실습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영농 기술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순창의 균거지를 활용해 만들어진다.

지난해 8월 부지 내 토지 합병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 시설설계공역을 완료했다. 지난달 시설통사에 본격 착수해 오는 8월 준공한다.

순창군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기 전, 부지 내 농지정리가 마무리되면 청년 농가들이 농지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습 농장이 예비 청년귀농인들에게 미리 영농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볼 예비 시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귀농인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순창=정영민 기자 jyj@kwangju.co.kr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 신축 행정문화복합센터로 탈바꿈

주민건강 위해 헬스장 등 갖춰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가 신축을 통해 행정문화복합센터로 거듭난다.

정읍시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현읍사무소 부지에 총 80억원을 투입, 지상 3층 연면적 1682㎡ 규모의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오는 2021년까지 신축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문화복합센터는 공공 복합청사로 기존의 행정업무와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체육 공간을 더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읍시는 센터 신축을 위해 시설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상반기에 설계 완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1층에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이 마련된다.

2층에는 주민건강을 위한 헬스장과 샤워실, 주민 소통·나눔 공간인 문화카페가 들어서고, 3층에는 문화복지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강당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센터 신축으로 기능이 분리된 시설들을 복합화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정읍시 북부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로 추진해 주민 공동체 문화형성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해남·강진·부안군 공동 추진 협약 전국 고려청자요지 90% 차지

전남 강진·해남군과 전북 부안군이 고려청자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한다.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역인 이들 지자체는 지난 17일 강진군청에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강진도요지'가 26년간 담보상태에 있는 데다, 단독 추진으로는 등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세계유산 등재 추세에 맞춰 '한국의 고려청자요지'로 명명했다.

강진·해남·부안지역은 총 450여기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전체 고려청자요지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생산지다.

대부분 국가사적·지방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세계유산 공동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협약에서 이들 지자체는 등재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예산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진에는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강진 고려청자요지' 100기와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81호로 지정



명현관(왼쪽부터) 해남군수, 이승욱 강진군수, 부안군수가 지난 17일 강진군청에서 고려청자요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된 '강진 삼죽리 도요지' 5기를 합해 총 105기의 요지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해남에는 사적 제310호로 지정된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100여기와 전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 80여기 등 총 180여기의 요지가 있다.

고려시대 최대 청자 생산지로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녹청자라고 불리는 초기 청자를 생산했

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안에는 사적 제69호로 지정된 '부안 유천리 요지' 45기와 사적 제70호로 지정된 '부안 전서리 요지' 40기를 합해 총 85기의 요지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세계유산 공동추진 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담보상태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익산시, 관광자원 활용 '익산 관광100선' 발굴

익산시가 지역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익산 관광 100선' 발굴에 나선다. 익산 중장기 관광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관광100선은 익산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모든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일부턴 다음달 17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익산관광 100선 추천서를 작성해 문화관광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iksan@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실사 등 검증을 통해 관광 100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선정된 관광100선은 책자로 발간돼 배부되며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500만 관광객이 조성을 위해 숨겨진 민간자원 발굴을 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익산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